

정윤하원장의 내일신문 인터뷰 내용 중

정 분당센터장은 2003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몸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좌측 귀에 큰 손상을 입어 청력이 43% 떨어졌고 균형 감각이 없어 잘 넘어졌다. 기면증이 생겨 정신을 잃기도 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알고 있던 사실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매일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다. 뇌신경 전달 조직이 새로 발달하고 신경세포 손상이 회복되어갔다. 마지막 진료에서는 87%까지 청력이 회복됐다.

하지만 2005년에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또다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자율신경계 손상을 입고 21일 넘도록 변의를 느끼지 못했고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9개월간 착용해야 했다. 편식이 심해 평소 못 먹던 고기, 밀가루 음식도 매끼니 질리지 않고 먹는데 살은 점점 빠졌다. 한여름에도 덜덜 떨 정도로 추위를 느꼈다. 팔은 15도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갓고 발목이 꺾일 정도로 쥐가 나는 것이 하루에도 수 차례였다. 그러나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작하자 전신의 떨림과 모든 증상들이 줄어들었고 점차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정 센터장은 수녀님의 소개로 여덟 번이나 소뇌종양으로 수술한 후 코마 상태(식물인간)가 되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만났다. 뇌파를 측정하고 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족들에게 뉴로하모니를 이용한 뉴로피드백 뇌훈련 방법을 알려주었고, 보호자가 열심히 훈련 시킨지 불과 3일만에 놀랍게도 일반병실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6개월 만에 환자로부터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를 선물로 받았다. 그 카드를 자랑하며 보여주었다.

정인지체 1급이던 초등학교 5학년생은 2004년부터 5년간 주 3회 센터를 방문해 훈련하고 집에서도 매일 훈련하면서 말도 하게 되고 학교도 다니게 되더니 현재는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자폐 증상으로 사회부적응으로 특수학교에 갈 계획이던 7세 아이도 뉴로하모니 뇌훈련으로 호전되어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정 센터장의 12년 동안 쌓인 풍부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문의 031-781-5236

이지윤 리포터 jyl201112@naver.com

학습과 정서 둘 다 나를 변화시킨 뉴로피드백 훈련

거제여중 3학년 이OO (2014. 2)

학습적인 면

1학년부터 3학년 초반까지 수학점수가 50~60 점이었지만 3학년 2학기 때에는 90점을 넘었다. 2013년 1월에는 수학문제집을 한 권도 다 못 풀었는데 이제는 한 권을 다 풀 수 있게 되었고 점수도 50 점 정도 올랐다.

보통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2 학년 때에는 굉장히 짧았는데 3학년 때부터는 3 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된 것 같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수업시간에도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이 더 똑똑 들어와서 핵심내용을 다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수학 C 단계 문제는 손도 못대고 A, B 단계 문제만 풀었지만 이제는 C 단계도 머리를 굴려서 풀 수 있게 되었는데, 뉴로피드백 훈련 중에 사고력 프로그램 덕분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것 같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서적인 면(성격)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엄마한테 짜증도 덜 부리고 생각하는 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친구들도 1년전 보다 더 밝아졌다고 한다. 학업적인 면에서의 불안감이 줄어서 성적도 오르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졌다.

옛날에는 공부를 안해서 엄마가 걱정했지만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고서 내가 공부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도 좋아하셨다.

아이가 변했어요!

전 12살 된 큰아이, 이제 막 10살이 된 작은아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지만 자라면서 큰 아이는 약간 다른 집 아이들과 달라 보입니다. 그 나 이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떤 것에도 호기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얼 시켜도 반응이 없는 내 아이, 전 초조 한 마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를 학습지를 포함해서 이것 저것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능력은 더 떨어지더군요.

학교를 들어간 이후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해 혼나는 날이 많았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 했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송파에 있는 육영회 에서 ‘성격유형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큰아이가 산만하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여러 가지 비디오를 많이 보여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나쁜 영 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계속 TV에 매달리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으로 보일 정도로 빠져들어 저희 를 힘들게 했고 궁지 에 빠진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 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힘든 나날 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함께 하는 모임의 선배로부터 뉴로하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여 교육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게 저희의 천운 이었습니다. 설 마 설마 했던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한 6개월쯤 하고 나니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요’. 공부하는 태도도 바뀌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집중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모든 생활 습관도 자율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 것 만이 아니랍니다. 학습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제 아들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급하 고 공격적이며 부모 말에 반항을 하던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 했습니다. 훈련과 상담을 통해 좋아진 아이들의 사랑 표현은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했고 전에는 바깥으로만 돌던 찬바람 아빠도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땡칠이(7시 땡하면 돌아온다는 뜻)가 되었지요.

이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도 뉴로하모니 훈련을 한답니다. 아빠 엄마도 좋아져야 한다고 아이들의 성화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원장님은 큰 아빠로 통하십니다. 사모님은 큰엄마(아빠와 엄마를 변화시킨 큰 사람이란 뜻이지요). 두 분의 말씀이 저희 부부의 말보다 더 효력이 크답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을 안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나는 뉴로하모니 훈련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될거야”하며 아이 스스로 믿고, 찾아서 한답니다.

물론 작은 아이에게도 경쟁하듯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그러나 원장님을 믿고 시작한 훈련은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이는 집중력모드, 작은아이 는 주의력모드가 나왔는데 처음 한달 정도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큰아이는 두통을 호소했고 작은 아이는 훈련을 시작만 하면 잠에 빠집니다. 그러다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아이들도 적응 을 하기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니 효과가 겉으로도 나타납니다. 학습지 3장 하는데 4 시간이 걸리던 아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10분도 안되어 거뜬히 해치웁니다. 집중 력이 늘었다는 게 보입니다.

6개월이 넘은 지금은요? 집중력은 당연히 더 높고요, 독서와 자기 조절 능력도 생겨서 하루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뉴로하모니 화이팅!”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파이팅!!” “우리 가족 만세” 그리고 “차원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너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집 웃음꽃이 활짝 핀 꽃밭이랍니다.

뉴로하모니가 선물해 준 건축 전기 기술사

건축 전기 기술사 서일원

2003년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두뇌 계발에 도움이 될까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뉴로하모니를 처음 접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뉴로하모니 매니아가 되어 체험수기를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장은 쉽게 넘어가지만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까닭에 두뇌계발이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뉴로피드백 두뇌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두달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잠이 깊어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기술(임원 업무) 정확성, 계획성, 정밀성을 요구하기에 항상 머리가 무거웠고 몸은 파김치가 될 정도였지만 오히려 잠이 깊지 않아 늘 피곤하였는데, 휴식 훈련을 위주로 한 결과 숙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맑아지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군인 정신이라면 전역 후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자기 조절된 상태에서의 정신력은 군대시절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중년의 나이에 기술사에 도전하게 만들었고, 업무 시간 틈틈이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며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응시한 기술사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공부이나 저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느낀 뉴로하모니 훈련의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짧은 수면으로 숙면이 되어 피로가 줄어 들었습니다.
- 둘째, 정신집중력과 암기력이 향상 됩니다.
- 셋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결과, 직장에서는 연봉이 두 배로 뛰었고, 기술사까지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느 누군들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두뇌계발 훈련을 더붙어 한다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훈련에 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작은 경험이 주변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자기 조절, 자기 통제를 위한 동반자로 뉴로하모니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대연초등학교 4학년 우○○

난 어머니의 권유로 뉴로하모니 훈련을 처음 접해 보았다.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아리송하기만 했다. 아리송한 기분으로 치르게 된 BQ Test. 이 검사는 나에게 휴식, 주의력, 집중력 중 주의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다른 능력들에 비해 떨어짐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력 훈련 모드를 선정 받게 되었다.

훈련 모드를 선정 받고 난 후 첫 훈련 날, 게임으로 되어진 훈련이라 그런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재미있었다. 그래서인지 점수가 쓱~ 쓱~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뭐랄까, 놀면서 하는 공부에 익숙하지 않다고나 할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날 불편하게 했었다.

그러나 이 기분도 잠시, 뉴로하모니 훈련을 한 달 정도 하면서 방식이 숙달되다 보니 이제는 훈련하는 시간도 참 짧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 이런 변화 때문인지 어머니의 권유로, 그리고 호기심에서만 시작된 뉴로하모니 훈련을 지금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런 나의 변화에 산타클로스가 상을 내려 준걸까?

뉴로하모니 훈련 한 달 만에 뉴로하모니 주의력 훈련 점수도 많이 향상되고, 이와 함께 학교 성적이 과목마다 90점 ~ 100점 정도로 올랐다. 그래서 성적이 오른 것과 뉴로하모니 훈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보니 뉴로하모니 훈련을 처음 받을 땐 잠잠한 뇌파가 나온 적이 거의 드물었는데, 성적이 오를 즈음 뇌파는 참 많이 잠잠했었던 것이다.

“아~!! 뇌파가 잠잠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뇌파가 되어야 비로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5학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참 기쁘다. 이젠 무작정 공부 하는 것이 아니라 뇌파를 차분히 만들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쉽게 향상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셈이다. 결국 지난 겨울 엄마가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뉴로하모니 훈련 기회 였던 것이다.

정신지체아 뉴로하모니 체험 후기

훈련대상 : 김영우. 정신지체 2급. 11세. 남

뉴로하모니 훈련 정확히 한달째. 늘 그 아이의 상태를 관찰해서 개선되는 부분을 단순 기록하기에 급급했으나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흐뭇합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강한 펀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있잖아요...”하면서 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천천히 방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아빠, 선생님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군요.

저 뿐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그런 행동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여느 아이처럼 그 애가 정상이었다면 당연한 행동들이겠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애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말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아이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아이의 행동은 ‘기적’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없을 것 같네요.

아직도 세상엔 너무나 많은 희망이 있고 기적이라는 예상치 못할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와 같은 처지의 아이 뿐 아니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뉴로하모니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난 지 8개월이 지나가네요.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교 도움 반에 들어가 있었고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아파도 말로 전혀 표현을 할 수 없었으며, 사람을 피하고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면서부터 많은 부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하면서 늘 관찰의 눈으로 이 아이를 대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많이 느낀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아이의 부모님들까지도...

의사소통이나 언어전달은 물론이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건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상인에 비해 발음이 조금 부정확 한것과 언어가 약간 어눌한 것 외에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친구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는가 하면 운동신경 또한 많이 발달하여 축구, 후프 돌리기, 발차기, 자전거타기 등등... 주변의 시선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 전달이나 혼자 전화 걸고 받기까지 하니 이젠 제 눈에는 정상인과 동일하게 보인답니다.

또 제가 놀란 것은 영어 대, 소문자를 모두 알고 시계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학습능력도 같이 향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이의 부모님은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2003년 여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뉴로하모니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독서는 만화책조차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쇼핑을 갈 때면 도서코너에 주저앉아 책을 보는 아이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그러던 중 뉴로하모니를 만나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시간이 우리 아이 일상과 맞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 밥 먹기 전(적어도 8시 전까지)에 훈련모드에 따라 주의력 훈련과 좌우 뇌 균형 훈련을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거의 매일 하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훈련한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가 책을 보기 시작하더니 책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요청이 반갑던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지요. 책을 원 없이 구입해 주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책 읽는 습관을 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센터장님께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세타파가 강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소홀히 하였던지 스스로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 2개월을 안 한 것이지요. 안되겠다 싶어 2004년 3월 신학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상위권이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노는 것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재미없다며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 애를 태우게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학원을 다녀오면 저녁식사를 바로 하게 되어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훈련을 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잠결에 하는 훈련이라 그런지 의욕도 없고 아토피 피부라 헤드밴드 부분이 몹시 가렵다며 하기 싫어서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지켜보는 엄마로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뇌에 대해 여러 정보를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센터장님의 말씀을 따르며 뉴로하모니 훈련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수동적인 훈련이지만 훈련을 계속해 나가니까 차츰차츰 아이가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격도 많이 온순해지고, 명랑해지고, 나서는 일을 시켜도 하지 않더니 그런 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암기력이 우수하다고 하시며 교우관계도 좋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던 중 지나고 보니까 훈련을 잘 하다가도 방학 때마다 리듬이 깨져서 못 하고 쉬었었는데 그것을 센터장님께서 항상 아쉬워 하셨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11월 아침에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의 뇌파를 보던 중 푸른색 일변도로 가라앉은 뇌파가 보여 깜짝 놀라 아이를 나무랐지요. 또 헤드밴드를 고장 내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센터장님께 문의해 보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하시며 집중력 뇌파라고 하시더군요.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뇌파가 황홀한 그림으로 보이더라구요. 그 동안 제 아이와 훈련을 놓고 벌인 전투를 아시기에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찌나 좋던지. 상위권 엄마의 기쁨을 말하던 CF광고가 바로 제 광고더라구요. 좋은 뇌파 상태가 되어서 우리 아이가 변했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뉴로하모니가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최소의 시간투자로 최대의 학습효과를 내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조금 공부하고 그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요. 그런 이야기를 센터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뇌 효율성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6학년 학기말 고사를 앞 둔지라 평소 반에서 상위권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분발해 주었으면 하고 표현은 못했지만 바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평소 하던 대로 전념하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대비 시험이기도 하여 전 과목을 보는 부담이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시험결과는 1등과 0.4점 차이로 전교 2등을 하여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엄마이다 보니 좋은걸 감출 수가 없네요. 어찌나 기쁘고 기쁘던지 연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비전을 갖게 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능력을 배가되게 도와준 뉴로하모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센터장님, 그리고 뉴로하모니를 개발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뉴로하모니~강추~^0^

나는 뉴로하모니를(이하 뉴하) 작년 8월, 그러니까 2004년인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매일 같이 책만 잡고 속독 훈련만 하던 나로써는 책이 아닌 정말 좋아하는 컴퓨터 앞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 만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훈련이었다. 또 헤드밴드를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가끔 한 번씩 들려주는 띠-띠-소리는 나의 흥미를 더 끌었다. 어떻게 이런 밴드가 내 뇌파를 읽고 또 이 뉴하가 읽는 내 뇌파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의 흥미와 호기심은 점점 지루함과 안타까움으로 변해갔다.

마음만 같아서는 활쏘기든 행성이던 컵 만들기이던 모두 다 100점을 맞고 싶은데 내 뇌는 잘 따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 동생은 활쏘기 점수도 쪽쪽 올라가는데 내 점수는 50점 대에서 도저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행성은 '과연 내가 이 훈련을 해서 언젠간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끈이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생님께 말씀 드린 결과, 선생님께서는 나의 뇌파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 하였다. 즉,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게 주의력 쪽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던 까닭으로 내 훈련 결과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며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내 친구들과 비교 했을 때 나는 정말로 감정 기복도 심하고 기분에 따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들의 능률이 결정되는 '기분파'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기분파' 스타일을 고쳐보고자 마음 먹고, 그 뒤로부터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훈련을 더 열심히 했다. 또 뉴하의 훈련시간도 점점 늘려서 다른 아이들이 약 20분을 할 때 나 혼자 30분-40분을 하였고 점점 점수도 올라가서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서는 정말 안 될 거 같았던 행성도 5분 안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3학년에 들어와서도 훈련을 꾸준히 한 결과 2학년 말 전교 60등정도 했던 성적이 점점 올라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32등을 했고 또 얼마 전 시험에서는 반 1, 전교 10등이라는 중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높은 점수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친구들은 나에게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 나는 정말로 뉴하에게 감사한다.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같이 훈련하는 친구들, 동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옆에서 돌보아 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신 정수영 선생님, 정말 많이 감사드린다.

이제 누가 물어보던지 나는 이렇게 말 수 있다.
뉴로하모니! 정말 강추!!_..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뉴로하모니

최근 몇 년간 아이는 많이 호전되었다. 아이는 자기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진단 받은 것이 만 4세 반,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었는데 폐쇄공포증에, 과감각, 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 섭식 장애 등등 자폐증은 아주 많은 증상들을 동반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나는 몇 년 동안 2시간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젠 오늘처럼 9시, 10시까지 늘어지게 잠을 잔다. 개학이 널 모래라 그냥 놔둔다.

내가 찾아 다닌 것은 중심을 바꾸는 방법이었다. 자폐아이의 표면적인 행동만을 바꾸는 치료 방법은 그저 끝없는 수평선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해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다. 내가 열리는 만큼 아이가 열려 졌고 자폐증은 많이 호전 되었다.

단지 이상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폐의 콘크리트 벽을 녹일 만큼의 힘이 그 아이의 무의식에 쌓아지길 바라면서 내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 이제 많이 왔다. 자폐의 전형적인 특성들, 위에서 열거한 과감각이나 폐쇄공포증, 섭식문제는 완전히 없어졌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언어가 많이 좋아졌지만 보통 아이들의 속도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그리고 자기자극의 행동이 조금씩 남아서 며칠씩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아직도 특이한 것에 집착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계속 찾고 있었다. 그때 뉴로 하모니를 만났다. 어느 날 언어 치료사로 있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가 박사논문을 쓰면서 뉴로하모니 라는걸 이용해서 정신지체아이 200명 정도에게 임상 실험을 해 봤는데 IQ가 10점 도 올라 갔다더라, 나온 지 얼마안되서 시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해 주었다.

몇 칠 후 아이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뉴로하모라는걸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며 생각해 보고 연락 달라며 전화번호를 주었다.

뭔가 속은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다. 다음날 오랫동안 들어가 본 정신세계사 사이트 에서 뉴로하모니 공개강좌 안내를 보았다. 기묘한 우연이군... 이 느낌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무조건 신청했다. 그렇게 시작 되었다. 강의를 듣고 당장 구입했다. 설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남편과 아이와 함께 대전에 있는 연구소까지 갔었다.

8월29일 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아이가 뉴로 하모니에 있는 퍼즐과 행성 맞추기를 아주 좋아해서 첫날부터 주의력10분, 집중력10분, 좌우뇌 균형 5분을 매일했다. 10일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3개월 동안 해보기로 하고 두고 보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달 반쯤 지나서 아이가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산만해지고 자기자극이 심해졌다. 좀 이상하다 하면서 지나갔다.

3개월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뉴로하모니의 프로그램을 바꾼 것이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2달쯤 되서는 알아서 잘하니까 나도 나태해져서 혼자 하게 내버려두었는데 훈련 하다가 헤드밴드 착용한 채로 컴퓨터 게임까지 했으니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을 게 뻔하다.

훈련모드를 바꾼 건 훈련 시작 한지 한달 반쯤 되었을 때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 기본 프로그램 전에 긴장이완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이 방법이 맞는지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 갔고 아이의 행동이 많이 눈에 거슬렸다. 일단 훈련을 중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폐의 특성상 긴장이완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것을 10분이나 했으니 자폐 상태로 돌아가라고 부채질한 격이 되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아는 게 병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퇴행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발전을 보였다. 한자 급수시험 6급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혼자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심부름을 하기도하고, 대학에서 하는 과학캠프를 혼자 갔다가 친구들과 복잡한 중앙시장 속에 있는 극장에서 해리포터를 보고 같이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 이거다! 하고 확신을 했듯이 여전히 뉴로하모니를 신뢰했다.

훈련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우리 집에 1학년 자폐 남자아이가 언어치료사 친구 소개로 뉴로하모니 하러 왔다. 공격성은 없지만 자폐가 심한 상태고 컴퓨터도 만지지 않으려고 해서 괜히 샀다가 못쓰게 될까 봐 실험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해보기로 했다.

3학년인 형과 엄마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재미있게 놀면서 교대로 30분씩 했다. 처음엔 먼저 형이 재미있게 하는 걸 보여주었고 화살 맞추기부터 했다. 싫다고 버티다 어찌다 화살이 하나 맞았는데 깜짝 놀라 화면을 쳐다보았다.

첫날은 5분 정도 맛만 보여 주었고 다음엔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갔다. 되도록 주의력 10분 집중력 10분 좌우 뇌균형 5분을 하도록 노력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엄마는 아이가 갑자기 글씨를 잘 읽는다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더니 지금은 자기가 또박또박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글을 읽는다고. 한 쪽은 내 아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보았고, 한 쪽은 시키는 대로 1주일에 한번이긴 하지만 기본 훈련을 착실하게 계속했다.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위에서 훈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 내 아이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뇌상담사 코스를 신청했다. 이런저런 경험 덕에 공부하는 아주 재미있었다. 뇌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후, 3주전부터는 뇌파분석을 해가면서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자기 자극 행동이 많이 줄었고 인칭대명사 “나”의 사용이 정확해졌다.

이제 자신 있게 아이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마치 성스러운 영역을 보는 것처럼 들여다본다. 임상경험이 많은 김용이 사장님께 아이의 뇌파 샘플을 보여드렸더니 60-70% 이상 지폐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1학년아이의 뇌파샘플에 모두 놀라워했다. SMR파가 살아나서 15 Hz대에서 선명한 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좌뇌가 좀더 살아있다. 요즈음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헤드밴드 착용하고 자기가 알아서 훈련모드 선택해서 게임을 한다. 25분간. 엄마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횡수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2월부터 또 한 팀을 시작했다. 6개월 전부터 집에 와서 한글과 숫자를 배우고 있는 뇌성마비 쌍둥이 남자 아이들인데 한 아이는 겨우 걷고 한 아이는 아직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 둘 다 약간에 정신지체이고 겨우 걷는 아이는 경기도 좀 한다. 이 아이들의 뇌파도 2주 동안 좋은 변화를 보였다. 자폐 아이와 다르게 보통아이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뇌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이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뉴로하모니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한다.

자폐아이에게 희망이 보여요

저는 청주에 사는 ○○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6살 된 중증 자폐 아동입니다. 몇 달 전 만해도 밤에 잠도 안자고 날뛰며 다니고, 외출시도 앞만 보고 쏜살같이 달리며 소대변 처리도 안되어 싸기 일쑤였지요..

그런 힘든 아이를 키우던 중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뉴로하모니를 만나게 되었지요.

27개월에 자폐아라는 것을 발견해서 백방으로 한약이며 특수교육이며 치료 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던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뉴로하모니를 접했는데 1달 훈련하니까 잠도 편안하게 잘자고 심한 짜증도 많이 사라지고, 3달 훈련 뒤에는 외출 시 한시도 손을 놓지 못했는데 손 놓고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대변 처리도 많이 좋아졌지요.

훈련을 하면서 뇌파가 변해가며 행동이 변하는 아이를 볼 때면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절망으로 얼룩진 삶에서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훈련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이런 아이는 어렵고 힘들어서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과 뉴로하모니측과 특히 제게 용기와 도움을 많이 주신 원혁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언어장애아의 엄마편

저는 언어발달지체를 앓고 있는 9살 00엄마입니다.

기질적인 원인 없이 또래 아이보다 말이 늦어 몇 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언어치료도 1년 넘게 받아 보기도 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어 결국 학교를 1년 늦게 보내어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늦으니 당연히 이해력도 부족하여 한글도 완전히 떼지 못한 체 제 이름 석자만 배우고 학교에 들어간 셈이었지요.

올 4월에 유치원 원장님의 소개로 뉴로하모니를 알게 되어 비싼 값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언어치료 3개월 조금 넘게 받는 값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4회 20분 정도만 (가르쳐주신 뉴로하모니의 프로그램대로) 따라 하면서 아이를 동네 속셈학원에 보내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하였지요.

근데 3월엔 국어책을 거의 못 읽던 아이가 지금 뉴로하모니 시작한지 4개월 반 정도 지난 후인데 더듬거리긴 하지만 국어책을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력과 어휘력이 또래 아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3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 볼랍니다. 뉴로하모니를 모르거나 망설이는 분에게 저의 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엔 좀 더 나아진 우리 아이의 모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로하모니와 7년만의 외출- 원혁이 엄마편

자폐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서원혁 어린이는 어머니 함계숙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혁이의 인생뿐 아니라 함계숙 씨의 인생도 새롭게 태어났다. 함계숙 씨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원혁이와 자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인생의 사명을 알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함계숙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원혁이는 함계숙 씨가 36살에 낳은 늦둥이다. 원혁이가 8개월 되던 때에 친척이 보더니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이라며, 자기아이도 이렇더니 장애아가 되었다고 얘기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그때부터 시작한 원혁이의 경기를 치료하느라 다른데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후로도 발달이 좀 더딘 것 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병원에 갔더니 자폐이면서 정인지체인 것 같이라며 언어치료를 권했다. 일주일에 두 번 받는 언어치료의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장애아가 있는 어느 선배 언니를 만났는데 그냥 복지관 같은 곳에서 제일 싼 프로그램 하라는 것이었다. 언어치료는 대안이 없으니 하는 것이라며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 이었다. 그러면서 복지관 생활 6개월이면 모든 엄마가 다 박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언어치료를 시작했으나 선배 언니의 말대로 효과가 없었다.

+ 인고와 절망의 세월

이때부터 함계숙 씨의 고독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원혁이 아버지는 외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원혁이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함계숙 씨 혼자 맡아야 했다. 아이가 크면서 더 힘들어졌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아이는 어느 틈에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길에서 잠깐 손이라도 놓칠 새면 쏠살 같이 도망가 달려오는 차에도 아랑곳 않고 도로로 뛰어들기 일쑤였다. 놀라서 가슴이 철렁하기를 몇 번 이었던가. 이웃에서도 아무 때나 불쑥 집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원혁이를 꺼렸다. 함계숙 씨는 운명을 원망하며 우울증에 시달렸다.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던 세월도 있었다. 원혁이와 같이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다.

+ 한방으로 체내열 치료

그러던 중 원혁이가 여섯 살 되던 해에 동의한방 연구소의 임교환 박사를 만나게 되어 원혁이 치료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임교환 박사의 이론은 자폐의 원인이 체내의 열에 있다는 독특한 것이었다. 치료방법도 자연치유에 가까운 방법이었다. 원혁이의 체내의 열을 빼내는 치료를 했고, 그 결과 과잉행동이 많이 잡히고 말문도 트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뇌 발달 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다닌 교회에서도 원혁이는 문제였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회의 신도님들은 원혁이의 치료를 기도해주었다.

+ 뉴로하모니와의 만남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함계숙 씨에게 뉴로하모니를 조심스레 소개해 주었다. 함계숙 씨는 뉴로하모니를 보는 순간 이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뉴로하모니를 구입해 훈련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 15분 훈련을 시키는데 한 시간도 넘게 걸렸다. 뉴로하모니 선생님은 원혁이가 네 번 정도면 훈련을 받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정말 네 번만에 원혁이는 가만히 앉아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저 재미있어서 하나보다 생각하고 꾸준히 훈련을 시켰다. 그러다 한 달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원혁이가 교회에서 1시간을 조용히 앉아 예배를 본 것이다. 모두들 놀라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다. 더 이상 원혁이는 말썽쟁이가 아니었다.

+ 사회성을 배우다

그때부터 원혁이는 달라졌다. 몸동작, 행동, 언어, 인지 모든 면에서 조금씩 향상을 보였다. 뉴로하모니 훈련 3개월이 지나면서는 원혁이가 흥분 발작을 시작했다.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저 아이가 저 아이를 때렸다”며 때린 아이에게 덤벼들었다.

한방연구소에 문의했더니 박사님은 최고로 좋은 현상이라며 좋아하셨다. 나 밖에 모르던 원혁이가 드디어 바깥세상을 느끼고 반응을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질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

원혁이에게 그런 경우는 때리지 말고 말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타일렸더니 처음에는 먹히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는 흥분 상태에서 아이에게 다가가 말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차츰 원혁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동안 원혁이는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세계에 필요한 사회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 집에서도 혼자 놀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던 원혁이가 드디어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었다. 임교환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폐아가 간혹 청소년기에 흥분발작을 일으키는데 이때 아주 멀쩡해 지거나 아예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원혁이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10년 정도 빨리 왔는데 이미 내열을 견딜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한방으로 원인 치료, 뉴로하모니로 뇌 개발

현재 원혁이는 특수학급을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고 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원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적응하며 빨리 배우고 있다. 교사의 말에 의하면 원혁이의 학업수준은 또래의 아이들과 같다고 했다. 함께속 씨는 원혁이가 고기능 자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자가 보아도 원혁이의 말투가 조금 어눌한 것 빼고는 별다른 점을 찾기 어려웠다. 글씨를 쓰고, 산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PC 게임을 하는 일곱 살 아이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자폐아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함께속 씨는 원혁이의 빠른 변화는 일단 한방으로 몸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뉴로하모니로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급속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믿고 있다.

+ 더 닫혀 있는 장애아 부모들

함계속 씨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장애아 부모들과 나누고 싶어 자폐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지지부진한 언어치료에 돈을 쓰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의외의 냉대였다고 한다. 아이가 낫는 방법만 알면 전 재산을 다 걸겠다던 사람들이, 함께속 씨가 쓴 글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사짓거리 그만 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것이다. 엄청난 모순이었다. 어떻게 같은 장애아 부모가 올린 글을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 지 화가 나 처음엔 공방도 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조금씩 글을 올렸다. 결국 몇몇 부모와 연락이 되었고, 지금은 조그만 모임도 갖고 있다.

+ 7년만의 외출

함계속 씨의 한방과 뉴로하모니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원혁이의 자폐 경력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알리려는 것은 장애아 가족들이 효과가 없는 기존의 치료법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올바른 치료를 하루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아이가 더 좋은 성년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함계속 씨는 뉴로하모니가 결코 물건만 팔아서 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했다. 뉴로하모니의 내용을 잘 알아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계 한 대 더 파는 것 보다는 구입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원혁이의 치료방법을 전수해준 부모들과의 모임을 지속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인식을 깨워주려는 것이다.

원혁이만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속 씨도 7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원혁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배우고 있듯이 함께속 씨도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 중이다.